KIET

해외출장보고서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08-23호

EU, 영국, OECD의 기업가정신 육성 제도(프로그램) 조사

- 김종호 부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1. 개요

○ 출장자 : 김종호 (산업경쟁력실 부연구위원)

○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영국 파리

○ 출장기간 : 2008. 6. 29. ~ 2008. 7. 6.

○ 출장목적 : EU, 영국, OECD의 기업가정신 육성 제도(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방문 일정 및 기관

○ 6월 29일 (일)

- 서울 출발, 프랑스 파리 도착

○ 6월 30일 (월)

- 파리 OECD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ME & Entrepreneurship Division 방문

- 면담자: Mariarosa Lunati와 Hyunwhan Kim

○ 7월 1일 (화)

- 프랑스 파리 출발, 벨기에 브뤼셀 도착

- EU, DG Enterprise and Industry 방문

- 면담자: Simone Baldassarri

- 벨기에 브뤼셀 출발, 영국 런던 도착

○ 7월 2일 (수)

-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방문

- 면담자: David Purdy

○ 7월 3일 (목)

- London Business School 방문

- 면담자: Michael Hay

○ 7월 4일 (금)

- Enterprice Insight 방문

- 면담자: Chris Spavin

○ 7월 5일 (토)

- 영국 런던 출발, 서울 도착 (7월 6일)

3. 출장결과 주요 보고내용

○ EU, 영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별첨 자료> 참조

<별첨> EU, 영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Ⅰ. EU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1. 기업가정신 육성정책 기조 및 주요 지원시책

◦ 2000년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화합을 수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채택

- 이를 위해 사회에서 혁신, 경쟁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을 인식하고,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초 기술(basic skills)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

◦ 2005년 리스본 전략의 개정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고취, 중소기업(SMEs)의 시장 진입 강화, 관료적 형식주의 축소 등을 제안

◦ 2006년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에 따라 EU 각국은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결의

◦ EU는 중소기업정책지침인 ‘중소기업헌장’에서는 창업이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저렴하고 신속한 창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가맹국들에게 신속하게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

(1) 기업가정신의 함양

◦ 기업가적 사고는 교육을 통해 길러지므로 젊은 층에게 창업자 혹은 자영업자로서의 직업기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관련된 경영(사업)기능을 익히게끔 하여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 이를 위해서는 빠른 단계에서 사업이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중등학교, 단대 및 대학에서는

사업에 관한 특별한 단위를 설치해야 함

- 창조성,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초등학교에서 실시

-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직업 중 가능한 선택의 하나로 자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매우 작은 회사, 혹은 가상회사를 설립하여 학생에게 운영하도록 시키면 '체험하며 배우는 것'이 가능

-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기회를 발견할 것인가 등의 보다 고차원적 훈련은 전문 중등직업훈련학교 및 대학에서 실시

- 2005년 9월 시점에서 잉글랜드 중등학교의 모든 14~16세의 학생들에게 5일간의 기업교육을 실시

(2) 기업가정신행동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 EU는 신사업의 개시(창업), 기업매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가정신 행동계획(Enterpreneurship Action Plan, 2004년 2월에 채택)을 책정하고 가맹국이 기업가정신의 고양 및 창업촉진에 관한 행동계획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

◦ 기업가정신 행동계획에 나타난 5가지 전략적 시책은

- 창업가적 사고를 높이고 고양시킴
- 보다 많은 사람이 창업가가 되는 것을 지원
- 창업가를 성장과 경쟁력에 적응시킴
- 금융(자금)의 흐름을 개선
- 중소기업에 양호한 규제 및 행정적 시스템을 창설

◦ 5가지 전략적 분야를 구체화하고 이들이 실무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해서 EU는 9가지의 주요 행동(Nine Key actions)를 정의

- 학교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사고 함양
- 사업실패라는 오명 경감
- 사업양도의 간이화
- 소기업경영자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개별적 지원
- 지역시장에서 중소기업사업력 촉진(용이화)/혁신적 클러스터 육성
- 보다 많은 자기자본과 강한 재무기반 구축
- 중소기업자의 의견존중
- 세제 간소화

2.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환경 조성

(1) 사회적 분위기 조성

◦ EU 중소기업(SME) 주간 예정 (2009년 5월 6-14일)

- EU는 중소기업 주간을 통해 회원국 국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려 함.

- 개최식과 폐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행사는 EU 회원국 국가별로 진행될 예정임.

(2)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2006년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에 따라 EU 각국은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결의

-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실습 프로그램 강화

* Young Enterprise Company Programme(UK): 15-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자발적 지원자의 도움 하에, 1년(one academic year) 동안 가상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Une entreprise dans votre lycee, Adacemie de Rennes(France): Academy of Rennes의 모든 중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수십개의 학생팀이 참가해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 JUNIOR (Junge Unternehmer initiieren organisiern-realisieren: Germany): 9학년 이상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소기업(mini-company)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 기업의 마케팅, 재무, 회계 등의 부서에 각각 참여해 1년동안 기업을 운영하게 함. 1년 후에는 기업을 청산하고 배당금은 주주에게 주어짐.

(3) 여성 기업가정신 강조

◦ European Network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WES)의 설립을 통해 여성 기업가들, 잠재적 여성 기업가들, 그리고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부 부처나 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

- WES는 EU 회원국들과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으로 구성됨.

- WES는 성공적 여성 기업가들을 홍보하고, 여성 기업가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여성 기업가들을 증대시키고, 기존의 여성 기업가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의 규모를 증대시킴으로서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려 함.

- WES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성공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짐.

◦ Women's Entrepreneurship Portal을 통해 여성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조직, 네트워크, 프로젝트, 여성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이벤트 등의 웹

사이트를 연결시켜줌.

◦ 2004년 3월 8일에는 International Women's Day를 개최하여 여성 기업 가정신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

3. 기업친화형(Business Friendly) 제도 정비

◦ EU 회원국들에서 조사된 중소기업 기업친화형 제도들로는

-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면세
- 중소기업에 특화되고 간략해진 의무사항
- one-stop shops와 같은 창업 절차 간소화
- 새로운 법규나 규제에 대한 동일화 된 시작일(commencement dates)
-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규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조기 효과 분석

4. 시사점

□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 기조

◦ 2000년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화합을 수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채택

- 이를 위해 사회에서 혁신, 경쟁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을 인식하고,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초 기술(basic skills)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

□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적 실시

◦ EU는 교육을 통해한 기업가적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6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를 선포했고, EU 각국은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결의

◦ EU는 이를 위해서는 빠른 단계에서 사업이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각 교육단계별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야 함을 강조

-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서는 창조성,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교육

-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는 직업 중 가능한 선택의 하나로 자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매우 작은 회사, 혹은 가상회사를 설립하여 학생에게 운영하도록 시키면 ‘체험하며 배우는 것’이 가능

- 전문 중등직업훈련학교 및 대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기회를 발견할 것인가 등의 보다 고차원적 훈련을 실시

□ 여성 기업가정신의 함양

◦ EU는 남성에 비해 뒤쳐져 있는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European Network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 (WES)의 설립을 하고, 여성 기업가들, 잠재적 여성 기업가들, 그리고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부 부처나 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

□ EU의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 방향

◦ EU는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규제 환경 개선의 기조로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함

-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새로운 정책 입안에 있어서 i)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ii) 중소기업의 사항을 고려한 선택사항들의 평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iii) 새 정책에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 강화

- 중소기업 규제의 단순화, 창업 및 행정규제와 관련된 one-stop shops 창설, 각종 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비스 신속화

- 새로운 법규나 규제에 대한 동일화 된 시작일(commencement dates) 적용

Ⅱ. 영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1. 기업가정신 육성정책 기조 및 주요 지원시책

◦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영국의 창업추진정책의 기본은 정부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

◦ 경제적 요인이 창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부의 효과적인 역할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을 시작하고자 창업을 방해하는 장벽을 발생시키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는 것

(1) 중소기업정책비전

◦ 2002년 12월에 발표된 “Small Business and Government - The Way Forward”에서 창업촉진을 포함한 7개의 전략적 과제를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 상정

◦ 다음의 7항목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성장 동력 확보

- 창업풍토의 구축: 창업할 것인가 피고용자가 될 것인가의 선택은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특히 창업에 대한 사회의 자세나 교육기관에서 전해지는 정보가 중요

- 보다 강력한 창업시장의 추진: 신규사업의 현저한 증가나 저생산성 사업의 폐지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는 중요한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

-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의 구축: 특히 경영기능, 기술혁신의 활용 및 우수사례의 채택 등 주요 분야의 업적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향상·개선

- 중소기업금융의 개선: 자금조달이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

- 발전이 더딘 지역 및 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계층에서의 창업 촉진: Neighbourhood Renewal Fund나 Phoenix Fund 대상지역에서는 창업이 국내 평균보다도 낮으며, 여성이나 흑인 및 소수 민족(BME)의 창업률과 기업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서비스의 개선: 중소기업은 따라야 하는 규제의 내용, 이용가능한 지원 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창업에 관한 정보의 질, 입수 등의 편의를 개선

- 보다 나은 규제와 정책 전개: 중소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부담의 경감 및 사업 환경의 개선.

2.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환경 조성

(1) Enterprise Insight의 Make Your Mark 캠페인

◦ 14~30세의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Make your Mark 캠페인을 통해 젊은 층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임. 캠페인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1> 참고

(2)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중등교육 및 창업지원교육

◦ 2005~2006년에 걸쳐 잉글랜드 중등학교 14~16세의 모든 학생은 5일간의 기업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의 책정, 판매나 회계 및 금융 지식 등에 대한 창업자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도의 사업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질 높은 정보, 조언 등을 지원

(3) 여성 기업가정신 강조

◦ 영국에서 여성 창업가의 비율은 남성창업가의 절반 이하 수준

◦ 영국 정부는 여성 창업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성창업센터를 설치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에게 창업 및 그 후의 성장이 가능해지도록 상담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자격 취득교육 기회를 제공

3. 기업친화형(Business Friendly) 제도 정비

◦ 영국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설립하게 하기 위해 전자수속에 의한 법인화 제도를 추진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낮춤.

- 매주 평균적으로 6,200개가 넘는 회사가 법인화되었으며 이 가운데 전자수속에 의한 법인화 비율은 75%로 상승

- 24시간 내에 수리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전자수속에 의한 비용은 20파운드로 서류에 의한 법인화수속을 같은 날 실시한 경우에는 80파운드보다 상당히 낮음.

4. 시사점

□ 기업가정신 육성기구의 운영

◦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과 재정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Kauffman 재단과 달리, 영국 Enterprise Insight는 민간 주도, 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가정신의 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가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민간 재단의 탄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데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기업가정신 육성 이벤트

◦ Enterprise Insight에 의해 운영되는 Make Your Mark 캠페인의 대표적 행산인 Enterprise Week에서는 11월의 한 주 동안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 2007년의 경우 영국 전역에서 5,270개의 이벤트가 진행됐고, 2006년보다 30% 증가한 584,000명이 참가함. 특히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Enterprise Week와 관련해 1,300건의 보도가 이루어짐

◦ Enterprise Week의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음

- 직장에서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대한 포상 및 발굴을 통해 피고용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Make Your Mark at Work

-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와 대학(colleges)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인터넷 기업경진대회로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의사소통 및 사업계획 기술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Make Your Mark Challenge

-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사업가의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려는 Women's Enterprise Day와 여성의 기업에 대한 소극적이고 위험 기피적인 태도를 바꾸고 젊은 여성들에게 role model로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irls! Make Your Mark

- 다음 세대에게 사회적 · 환경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는 Social Enterprise Day

□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중등교육 강화

◦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의 창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 기업가정신의 함양

◦ 영국 정부는 여성 창업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성창업센터를 설치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에게 창업 및 그 후의 성장이 가능해지도록 상담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자격 취득교육 기회를 제공

◦ Enterprise Week의 Women's Enterprise Day 및 Girls! Make Your Mark 캠페인 등의 여성 기업가정신 육성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

□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

◦ 영국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설립하게 하기 위해 전자수속에 의한 법인화 제도를 추진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낮춤.

<부록1>

영국 Enterprise Insight의 현황과 시사점

1. 설립개요

□ 설립자: 영국의 4대 주요 경제단체인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CBI, 중소기업연합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 Institute of Directors

◦ 영국 수상인 Gordon Brown의 지지(endorse)하에 Arts Council England, Association of Colleges, Black Training and Enterprise Group, Business in the Community,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Enterprise Education Trust, Learning and Skills Council, 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Entrepreneurship, National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Network, National Federation of Enterprise Agencies, Prowess, Quality Improvement Agency, Scottish Government, South-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representing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Shell LiveWIRE, Social Enterprise Coalition, Specialist Schools and Academies Trust, The Prince's Trust, UnLtd, Young Enterprise 등의 민·관 단체들과 연계

□ 재원 지원: 영국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 재정지원규모는 2006년 600백만 파운드, 2007년 500백만 파운드

□ 설립년도 및 성격: 2004년 설립, 민간주도·정부지원 의 비영리기업

□ 설립 비전과 임무[1)]

◦ 영국의 모험가적 기업 문화와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활동의 증가를

1) http://www.makeyourmark.org.uk/about_us/vision

통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1) 기업가적 동기와 확신을 고취시키고, 2) 기업가적 경험, 능력, 포부를 증대시키며, 3)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격려하는 사업을 수행함.

2. 운영현황

□ 현 주소: Make Your Mark, 6 Mercer Street, Covent Garden, London WC2H 9QA, United Kingdom

□ 이사회 구성: 설립주체인 영국 4대 주요 경제단체의 장들로 이사회가 구성됨

□ 운영규모

◦ 2007년 정부지원 예산이 500만 파운드이고, 지출규모는 정부예산 규모와 같음.

□ 직원규모: 50~60명의 정규직원

□ 운영전략

◦ 런던 이외에 Coventry, Liverpool, Lowestoft & Waveney, Tees Valley, Wakefield 등에 지부를 두고 있음

3. 주요사업

◦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기업가정신 문화를 심어주고 고양시키기 위한 전국가적인 Make Your Mark 캠페인 활동에 주력

- 영국의 10·20대들에게 영리·비영리 사업체의 창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창조적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데 초점

□ 기업가적 동기와 확신의 고취

◦ Enterprise Week

- 행사 개요 및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부록2> 참고

◦ Girls! Make Your Mark

- 행사 개요 및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부록2> 참고

□ 기업가적 경험, 능력, 포부의 증대

◦ Make Your Mark Clubs

◦ Make Your Mark Challenge

- 행사 개요 및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부록2> 참고

4. 한국에의 시사점

□ 기업가정신 증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의 필요성

◦ 지속적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과 사회의 지속적 관심 유도

◦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